고용 신(雇用 神)과 선 신(選 神)

(행21:37-22:29)

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8.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9.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1.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고용신과 선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1) 고용신이나 선신이라는 말은 사실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굳이 문자대로 뜻을 새기자면 고용신이란 사람에게 고용된 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신이란 사람에게 선택 받은 신을 뜻하겠지요. 고용신이다 선신이다 하는 것은 고용인과 선민이라는 단어에 빗대어서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그러나 단어가 없을 뿐이지요. 실제로는 내용상 우리들 인간 사회 안에 엄청난 숫자의 고용 신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과 신격화 된 모든 우상들이 예외 없이 고용 신들입니다. 각 종교에 속한 신자들이 다양한 방식의 품삯을 주고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고용한 신들이지요.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신들 중에 오직 단 한 분의 신만이 선신입니다. 즉 사람들에 의해 고용될 수 없고 대신에 오직 선택될 수만 있는 신이 단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참 신이시기도 하시고요.

2) 그런데 얼른 생각하기에 고용신과 선신의 차이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용이라는 말 속에 이미 선택의 뜻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한 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신이나 우상을 고용할 때 반드시 그에 앞서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왜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까? 왜 아데미 여신입니까? 왜 이 사람은 불상 앞으로 나가고 저 사람은 삼신할머니를 숭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돼지 머리에 절하며 고사를 지냅니까?

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먼저 좋아해서 선택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번창하여 돈을 많이 버는 일이든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든지, 공부 잘해 좋은 대학가고 인생에서 입신양명 한다든지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 등등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람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여간 무엇이든 우선 선택하고, 그 다음 선택한 것을 소원하면서 손에 넣으려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고 마음의 배부름을 얻고 그렇게 만족해서 행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선택하여 소원하는 것이 뜻대로 잘 안되지요? 이런 바람들을 위해 자기계발에 힘을 들이며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습니다. 왜요? 신이나 우상을 고용하려고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쯤 고용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의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의 고용주로서 살고 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3) 그러면 이렇게 신을 고용하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신을 고용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만족함을 얻기 위해 내 빈 마음에 채울 것을 좋아하여 선택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그 소원을 들어줄 신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차후의 고용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의 선택단계에서 고려되어야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이벌은 엄밀히 말해 바알신이나 알라신이나 부처님이나 여타의 종교의 신이나 우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라이벌은 돈이고 건강이고 출세고 나의 미모고 내 애인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됩니다. 또한 애국 애족 자연사랑 동물사랑 취미 등등 내 마음이 좋아하여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고용신이 아니라 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 내가 돈 대신에 출세 대신에 심지어는 가족대신에 애인 대신에 선택해야할 선신이십니다. 부처님이나 알라신을 고용하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을 고용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됨으로 기쁘기를 의도하는 스타일의 신앙이란 사실 난센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돈 대신에 혹은 여타의 대상들 대신에 기쁨의 이유로 선택되셔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 고용되시는 대신에 선택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실제적인 효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 그 자체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의 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장님 되기 위해서라면 죄 사함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빠 되고 엄마 되기 위해서도 죄 사함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내 빈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모셔 들이기 위해 더러운 죄의 사함이 불가결한 것이지요.

4)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용신이 아니라 선신이라 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아무나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행위 자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인간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용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을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조건으로 선택하기를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선택의 특권이 허락되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선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용신이 아니라 선신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먼저 구별하여 정하신 선민에 의해 선택되시기를 원하시는 선신이십니다.

5)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주된 내용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함께 배석한 천부장의 보호 아래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고 자기 변론을 펼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심리상태를 고려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전개됩니다.

변론은 먼저 유대인들과의 동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됩니다. 그에 따르면 전형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대의 교육 시스템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유대전통과 율법준수를 위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과 헌신을 통해 삶을 일관했다는 것을 역시 어필합니다. 그 결과 심지어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앞장서서 박해까지 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지나칠 정도로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자기 생애에 일어났던 극적인 반전을 한층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 반전은 예수님의 교회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교회박해의 선봉장이었던 사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이 일어났지요.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가 박해하

던 예수를 오히려 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믿게 된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정말 사람 팔자 시간문제지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모든 변론이 이제 다음의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즉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바울의 치열한 자기변론은 결국 이방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인 것으로 확증하고 설득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들끓던 분노를 삭이고 바울의 변론을 경청하던 유대인들의 태도가 이쯤에서 갑자기 돌변합니다. 아직 변론이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변론은 중단되었고, 이제 더 이상은 계속 될 이유나 의미도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22절 23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6)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변론이 갖게 되는 결정적인 딜레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는 정말 지혜로운 의도로 치밀하게 잘 짜여 진 변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때문에 상황은 유대인들의 심리 상태와 미묘하게 얽혀서 원하지 않은 곳으로 치닫고 맙니다.

바울은 구원의 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갈파합니다. 지금 사도바울의 자기의 변론을 듣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 선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확증할 수 있기만 하면 혹시 이방인을 위한 자기의 사역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개입을 증언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의도와는 정 반대로 유대인들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사도를 살려 둘 수 없는 이유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으로 증언하는데 그 논리가 너무나 강력하고 설득력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역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이방인 사랑에서 나온 것쯤으로 변명했다면 그냥 매나 몇 대치고 권고해서 방면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특별한 계시 사건에 늘 목말라하며 살던 선민 유대인들로서는 소름 돋을 만큼 확실한 경험의 토대 위에서 자기 증언을 하는 바울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도를 전하려 하신다는 사실도 그리고 또한 그런 이상한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 사도바울을 부르셨다는 사실도, 모두 유대인들의 존립기반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일이었던 겁니다.

7)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그러나 표피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늘 이런 대목에서 언급 되는 바가 있잖아요? 선민들의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파생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피적으로 처리해 버리면 간과되어 버리는 더욱 심각한 문제의 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권의식의 잘잘못을 헤아리기 이전에 이미 뭔가가 단단히 뒤 틀려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지구 평면 위에 같이 살고 있는 선민과 이방인 사이에 성립하는 사람과 사람의 평면적인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방인에 대한 생각만 너그럽게 바꾸면 고쳐질 병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라서 선민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에 대해 이렇게 악의적으로 마주 대하는 것일까요?

한 마디로 선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신으로 대하여야 할 선민들이 그 하나님을 고용신으로 관계한 것이 이렇게 모순된 상황을 빚어낸 원인이 된 것입니다.

8) 이제 선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고용한 내막을 한 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신을 고용하려면 반드시 고요에 앞서서 그 신을 통해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형통이든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쓸 일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어떤 종교이든 소속 되어 소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 종교의 신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은 정확히 다시 표현하면 신을 고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신을 대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과 관계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먼저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신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신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고용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관계하기 전에 이미 마음 안에 선택해서 집어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습게도 이 선택 단계에서 조금도 선민다운 특별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똑 같습니다. 우선 돈 좋아하고요. 건강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부강함을 좋아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 위에 유대나라가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이방나라들이 태

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올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아해서 선택한 것을 이루기 위해 신을 고용한 사실 까지도 똑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다른 것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즉 이방인들은 거짓 신과 헛된 우상들을 고용했다면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참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용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사실이 참 무섭습니다. 고용하려 해서도 안 되고 고용되실 수도 없는 하나님을 고용주의 마음으로 관계하는 이 죄악의 역사가 참으로 장구합니다.

바울 당시 특히 오늘 본문이 기록 된 시점을 생각해봅니다.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 같은 우상 숭배는 바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긴 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말고는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일견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십여 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초토화 되어 버리고 맙니다. 거룩한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 남 왕국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궤멸될 때는 분명 우상숭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정말 괜찮은 상황 아닐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막을 보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것은 그 신과 우상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 안에 풍요와 다산을 좋아해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등 헤아릴 수 없는 고초를 겪고서야 우상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이제는 식민지하에 있긴 하지만 그런 몹쓸 우상숭배는 근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만 안 할 뿐입니다. 이 말은 바알 대신에 하나님을 고용했다는 뜻이지요. 즉 풍요와 다산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려 천년의 세월을 지속한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데미와 알라신 불상과 삼신할머니 등은 하나님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바알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라이벌은 종교적인 영역 속에 있지 않습니다. 웅장하게 지어진 신전이나 깊은 산 속 고즈넉한 곳에 있는 사찰 대웅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 사회 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라이벌은 이방지역들에서 만나는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 있어 하나님의 라이벌은 사업이고 돈입니다.

9)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갈등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신 신앙과 하나님을 고용하는 고용 신 신앙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을 고용해서 이방나라와 이방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높여질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해 마땅한 대적으로만 여기던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고용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이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그 특권의 표시요 상징이었던 율법과 할례와 모든 규례가 색이 바래집니다. 하나님을 고용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만이 누려 마땅한 모든 특권이 사라짐과 아울러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이상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 땅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확장됨을 통해 더욱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참 재미있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무려 한 번에 3천 명씩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유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베드로의 설교는 어쨌든 유대 사회 내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행하여졌던 것인 반면 바울의 사역은 이방세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는 유대민족의 선민의 정체성 자체에 훼손이 가해지는 일은 없겠기 때문이었겠지요.

이들의 문제는 물론 잘못된 특권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한 대상을 선택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고 이 땅위의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이 땅위의 민족적 형통을 만족과 기쁨을 위해 선택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자신을 선택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민족의 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다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둘은 결코 만나지지 않는 평행선을 긋고 있었던 셈입니다.

10)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고용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피하고 선민으로서 실제로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마음으로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좋은 돈 대신에 하나님을 마음에 채울 대상으로 선택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세요.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세요. 바로 돈 앞에서 말입니다. 돈이 문제가 되는 모든 상황에서 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향하는 대신 돈에 마음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죽음을 통해서 말이지요. 돈 뿐만 아니라 내 빈 마음에 채워 만족을 얻고 싶은 모든 좋아할 만한 것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 길 말고 다른 방법이나 경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 선택되어지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백년 다녀도 하나님이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어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제목 한 보따리 지고 산에 올라가 백일 금식을 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좋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빈 마음에 채우기에 바람직해 보이는 모든 세상 것에 대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만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람인 내가 실제로 선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업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 선택하고 하나님 고용한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식 위해 기도하세요?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자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고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위해서 자식 위해서 등등 당면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예 기도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실제로 선택해보면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채로 계속 생각으로 걱정만 할 일은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을 선택하고 봐야 할 일입니다.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 삶의 문제들을 전혀 신경 못쓰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관련된 모든 삶의 정황과 가족과 사업과 일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 곁에 있게 된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계획안에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위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날마다 십자가로 죽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선민이듯 영이신 하나님은 선신이십니다. 하나님을 고용하는 선민은 유대인의 길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민은 사도 바울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참신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아버지를 고용하지 말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